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Ecological Systems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hood Depression

강희경

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Hee Kyung Kang(khkyung@seoil.ac.kr)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체계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1학년 4차년도 자료 2,119사례였다. 유기체변인(아동의 성별, 공격성, 주의집중), 미시체계변인(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관계, 교사관계), 외체계변인(지역사회인식), 거시체계변인(공동체의식) 순서로 4가지 모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와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모든 생태체계변인들이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아동의 공격성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의 학대, 친구관계와 지역사회인식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갖는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아동기 우울 | 생태체계 요인 | 미시체계 | 외체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logical systems factors on childhood depression. A total of 2,119 children data from 2013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the fourth wave)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showed the most ecological systems factors; organisms(child's gender, aggressiveness, attention problems), microsystems(parental neglect, parental abuse,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exosystem(supportive community environment); had effects on depression.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ere child's aggressiveness, parental abuse,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supportive community environ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and further research in childhood depression.

■ keyword : | Childhood Depression | Ecological Systems Factors | Microsystem | Exosystem |

I. 서론

우울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재화된 문제이다[1]. 성인기 우울에

비해 아동기 우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아동기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심리적 장애가 성인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발달적 양

* 본 논문은 2015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10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22일

교신저자 : 강희경, e-mail : khkyung@seoil.ac.kr

상을 보이므로, 아동의 정신병리적 현상이나 증상 등에 있어서 성인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기여했다[1].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우울증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증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며, 치료 후에도 재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실제로 질병관리본부[3]의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 경험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아동기 우울의 조기 진단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기 우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생태체계 접근은 유용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생태체계접근은 환경 간의 상호교류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할 때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4].

그러나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많이 언급되어진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5-7]이나 부모 등을 포함한 가족관련 변인[8-10] 그리고 학교입학과 함께 형성되는 친구[5][6][11] 또는 교사 관련 변인[5][11] 등 아동 유기체 변인과 인접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수준의 환경이 우울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수준의 환경을 Bronfenbrenner[12]가 제시한 체계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아동기 우울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아동기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환경수준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생태체계 관련 변인으로 Huberty[1]가 제시한 아동의 발달정신병리 관련 위험, 취약성, 보호요인 및 보호기제의 목록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아동 유기체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및 주의집중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미시체계 환경 수준에서는 아동의 중요한 인적 환경인 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

관계 및 교사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외체계 환경에서는 아동이 소속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환경 수준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아동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동기 우울에 대한 연구가 아동 자신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미시체계의 영향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미시체계 뿐 아니라 외체계 및 거시체계 수준에서의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태체계 접근

체계모델은 자연과학에서, 생태학이론은 생물학에서 발달한 이론적 접근이다. 두 이론을 접목한 생태체계 접근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의 개념들을 사회복지에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4].

생태체계 접근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고정된 과정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라고 보고, 이들 간의 상호교류성을 강조한다[13]. 즉,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체계 접근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때 개인과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환경 체계 수준에 대한 Bronfenbrenner[12]의 분류가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준다. Bronfenbrenner[12]는 개인을 중심으로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그리고 거시체계(macrosystem)로 분류하여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 번째 환경수준은 미시체계로

개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환경요소인데, 개인이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인간관계의 유형이 이에 속한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로, 아동의 경우 가족, 학교와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12]. 외체계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인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형제의 학교, 부모의 친구 조직망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환경요소이다[12].

이러한 기본적 가정을 갖고 있는 생태체계 접근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문제 사정과 개입을 할 때 반드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생태체계 접근은 개인의 욕구만족과 발달과업 완수를 위하여 개인과 환경 간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자원이 접근 가능해야한다고 전제한다. 환경 자원 부족과 자원 이용의 어려움, 개인과 환경체계 간의 비정상적인 상호교류는 개인의 욕구 만족을 차단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발달을 손상시킨다. 이에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효율적인 교류를 촉진시키고,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4].

또한 생태체계 접근은 건강, 가족관계, 저소득, 정신건강, 실업, 교육적 어려움 등 광범위한 개인의 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생태체계 접근을 실천현장에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4].

2.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아동의 발달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환경 요소들을 분석한 Huberty[1]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과 충동조절문제, 그리고 주의집중 부족은 중요한 취약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남성보다 우울 발생률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 이전의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1]. 아동의 성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른 국내 연구들에서도 아동의 성별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소현과 조현하[14], 그리고 장수환[15]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조선미, 신윤미, 박정희[16]의 연구 역시 아동우울 고위험군에 있어 성별은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3]의 최근 보고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생 패널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임진섭[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높은 공격성이 이후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분석[17]도 공격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아동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집중 문제는 학습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도 타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18]. 따라서 친구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우울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김정민과 송수지[1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환경은 우울의 발달과 발달경로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아동기 우울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의 역동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 그 중에서도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기 우울과의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홍영수[1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온숙과 정익중[9], 황은수와 성영혜[19]의 연구에서도 정서학대가 아동의 우울성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패널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김수정과 정익중[8]의

연구 역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일차적인 사회적, 학습적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환경 안에서 우울한 아동이 어떻게 기능하며, 수많은 요구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1]. 아동의 학교환경을 구성하는 인적 환경 요소는 친구들과 교사이므로, 이들과의 관계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친구와의 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5][6][11].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낮아지고[5],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6]가 높을수록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대상 연구[20]에서도 또래관계와 우울이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와의 관계 역시 아동기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미영과 정현희[5]의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애착수준이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4년간 추적 연구한 중단연구자료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우울 변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되었다[11].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1] 역시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연희와 김선숙[2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과 감독 요인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웃환경무질서[23][24]와 같은 지역사회 특성들이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외체계 변인이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공동환경에 해당되는 거시체계 변인으로 공동체 의식을 선정하였으나, 공동체 의식과 아동기 우울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보고한 국내 연구들

[24][26][27]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 4차년도 자료 2,119사례이다. KYPS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료이다. KYPS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조사표는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KYPS는 매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된다[28].

[표 1]은 연구대상아동과 그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아동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아가 51.6%, 여아가 48.4%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분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상이 61.1%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55.0%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성별	남	1,093(51.6)
	녀	1,026(48.4)
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87(38.9)
	대졸이상	1,234(61.1)
모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917(45.0)
	대졸이상	1,120(55.0)
가족의 월수입	200만원 이하	242(11.8)
	201~400만원	840(41.0)
	401~600만원	684(33.4)
	601만원 이상	281(13.7)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10.45(SD=.30)세였고, 가족의 월수입은 평균 407.18(SD=215.48)만원이었다. 월평균 소득구간별 분석결과를 보면, 200만원 이하가 11.8%,

201~400만원 구간 41.0%, 401~600만원 33.4%, 그리고 601만원 이상이 13.7%임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2.1 유기체변인

아동의 공격성과 주의집중은 조봉환과 임경희[29]가 개발한 척도에서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향이 강하며, 주의집중력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Cronbach's α 계수는 주의집중 .805, 공격성 .813로 산출되었다.

2.2 미시체계변인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허묘연[30]과 김세원[31]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각각 4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민병수[32]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 중 교우관계 요인 5문항, 교사관계 요인 5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교우관계 .660, 교사관계 .860였다.

2.3 외체계변인

외체계변인인 지역사회인식은 Carolina Population Center의 ADD Health문항[33]을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6문항의 4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Cronbach's α 계수는 .693이었다.

2.4 거시체계변인

거시체계변인인 공동체 의식은 권혜원[34]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한 4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Cronbach's α 계수는 .811이었다.

2.5 아동의 우울

아동기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35]' 중 우울 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계수는 .892였다.

3.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 문항의 내적 일관성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주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일반적 경향 분석을 위하여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지수를 구하였다.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적률상관계수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결 과

1. 아동기 우울과 관련 생태체계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표 2]는 아동의 우울과 독립변인인 생태체계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연구대상 아동의 우울 평균 점수는 14.70(SD=5.06)점으로 나타났다. 1~4점 Likert 척도 기준 평균점수는 1.47(SD=0.51)점으로, 우울의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1.25, 1.56으로 산출되었다.

다른 독립변인들에 대한 왜도 및 첨도 분석에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0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0이하로 나타나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36]을 알 수 있었다.

표 2. 우울 및 생태체계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내용	사례수	평균(SD)
우울	남	1,093	14.83(5.05)
	여	1,026	14.57(5.08)
	전체	2,119	14.70(5.06)
공격성	남	1,093	10.34(3.29)
	여	1,026	9.75(3.22)
	전체	2,119	10.05(3.26)
주의 집중	남	1,093	21.25(4.07)
	여	1,026	22.63(3.72)
	전체	2,119	21.92(3.96)

방임	남	1,093	8.51(1.59)
	여	1,026	8.54(1.57)
	전체	2,119	8.53(1.58)
학대	남	1,093	7.13(2.83)
	여	1,026	6.19(2.40)
	전체	2,119	6.68(2.67)
친구 관계	남	1,093	15.95(2.51)
	여	1,026	16.64(2.20)
	전체	2,119	16.29(2.39)
교사 관계	남	1,093	15.86(3.30)
	여	1,026	16.78(2.92)
	전체	2,119	16.31(3.15)
지역 사회 인식	남	1,093	18.95(3.10)
	여	1,026	18.92(3.22)
	전체	2,119	18.94(3.15)
공동체 의식	남	1,093	12.10(2.68)
	여	1,026	12.75(2.36)
	전체	2,119	12.41(2.55)

2.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표 3]은 생태체계변인들이 아동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와 VIF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계수의 경우 .80보다 작게 나타나서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37]으로 나타났다.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계수도 모두 4이하로 분석되어 독립 변인 간 다공선성이 없음[38]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졌다. 모델1에서는 유기체변인인 성별과 공격성, 주의집중이 투입되었고, 모델2에서는 미시체계변인인 부모의 방임과 학

대, 친구관계, 그리고 교사관계 요인이 투입되었다. 모델3에서는 외체계변인인 지역사회인식이 투입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는 거시체계변인인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추가되었다.

유기체변인이 투입된 모델1에서는 아동기 우울을 34.9% 설명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아이고 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주의집중력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F=378.69, p<.001). 미시체계변인이 투입된 모델2 역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었고, 교사 관계를 제외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관계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정도가 심하고 학대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주의집중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208.81, p<.001). 모델2의 총설명변량은 40.7%였으며, 설명변량 증가량 6.0%(p<.001)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3은 외체계변인인 지역사회인식이 추가 투입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아동의 지역사회인식 역시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F=188.31, p<.001), 41.4%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3의 변량증가분 0.7%(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모델3의 결과를 적용하면, 여아이고 아동의 공격성이 강할수록, 주의 집중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방임수준이 높고 학대수준

표 3.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변인	모델1 유기체변인		모델2 미시체계		모델3 외체계		모델4 거시체계	
	B	β	B	β	B	β	B	β
성별(1=남)	-.45	-.04*	-.76	-.08***	-.66	-.07***	-.64	-.06***
공격성	.74	.48***	.63	.41***	.63	.40***	.63	.40***
주의집중	-.20	-.16***	-.11	-.09***	-.11	-.09***	-.11	-.09***
방임			.29	.09***	.26	.08***	.26	.08***
학대			.30	.16***	.29	.15***	.28	.15***
친구관계			-.28	-.13***	-.22	-.10***	-.23	-.11***
교사관계			-.05	-.03	-.01	-.01	-.01	-.01
지역사회인식					-.17	-.10***	-.18	-.11***
공동체의식							.06	.03
R ²	.349		.409		.417		.417	
수정된 R ²	.349		.407		.414		.415	
R ² 변화량			.060***		.007***		.001	
F	378.69***		208.81***		188.31***		167.68***	

*p<.05, ***p<.001

이 높으며, 친구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수준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변인인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투입된 모델4는 41.5%의 변량을 설명해주어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F=167.68$, $p<.001$), 공동체의식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4의 변량증가분 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아동기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공격성($\beta=.40$), 부모의 학대($\beta=.15$), 그리고 친구관계($\beta=-.11$)와 지역사회인식($\beta=-.11$)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태체계접근에 기반을 두고,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연구모델에 적용된 유기체변인은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주의집중이었고, 미시체계변인으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관계, 그리고 교사관계 변인이 투입되었다. 외체계변인으로는 지역사회인식이, 거시체계변인으로는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적용되었다. 연구분석자료는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4차 자료 2,119사례였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체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1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및 주의집중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일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강할수록, 아동의 주의집중력이 떨어질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없다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들[14-16]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Huberty[1]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공격성이 우울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보고한 임진섭[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 아동기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있어 우선 순위 대상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낮은 공격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험적 연구들[7][17][39]에서는 높은 공격성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기 우울에 대한 예방과 개입에 있어 공격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낮은 주의집중과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의집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 필요함을 지지하여 준다.

둘째, 미시체계변인인 부모의 방임과 학대, 그리고 친구관계는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대와 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들[8-10][19][20], 친구관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5][6]과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기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관련을 제시한 연구들[5][11][21]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방임 및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실제에 적용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과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우울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정서적 개입이 우선 순위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친구관계와 우울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동기 우울 예방 차원에서 사회성 기술향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학교 차원에서 보급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체계 변인인 아동의 지역사회인식은 우울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22-2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생태체계론적 접근은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있다. 특히, Bronfenbrenner[12]

의 외체계 모델은 이웃과 지역사회가 부모-자녀관계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명백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된다[40].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지역사회인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분석 결과는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인 생태체계적 접근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더불어 지역사회인식이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유대 강화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거시체계변인인 아동의 공동체 의식은 우울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공동체 의식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25-27]과는 다른 결과이다.

초기 가정과는 다르게 나타난 본 결과는 아동기라는 발달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까지 일련의 발달 단계에 있어 인간은 성장단계에 따라 이전에는 접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사회체계 환경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영역은 점차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삶이 가족과 학교, 친숙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환경 요소인 거시체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생태체계적 접근이 아동기 우울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울을 포함한 아동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여러 환경적 요소에 어떤 구체적인 변인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수준에서의 개입을 위한 실천적 자료를 제시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2차 자료라는 한계로 인하여 중간체계 관련 변인과 같은 보다 다양한 생태체계 변인의 영향력이 분석되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1] T. J. Huberty,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pringer, New York, 2012.

[2] 배유진, 홍상황, “아동우울 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6권, 제3호, pp.265-289, 2009.

[3] 질병관리본부, *2013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및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4

[4] D. H. Hepworth, R. H. Rooney, and J. A. Larsen, *Direct Social Work Practice : Theory and Skills(5th Ed.)*, Brooks/Cole, 1997.

[5] 김미영, 정현희, “아동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에착과 또래에착의 매개 효과,” 아동교육, 제24권, 제3호, pp.101-116, 2015.

[6] 심희옥,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 성향 :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6호, pp.133-144, 1999.

[7] 임진섭,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pp.161-185, 2010.

[8] 김수정, 정익중, “아동학대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3권, pp.1-28, 2013.

[9] 나은숙, 정익중.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8권, 제4호, pp.35-49, 2007.

[10] 홍영수, “부모학대가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 지지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30권, pp.225-244, 2010.

[11] 노연경, 홍세희,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성별, 관계 친밀도와 의 관련성 검증,” 교육방법연구, 제22권, 제2호, pp.91-110, 2010.

- [12] U. Bronfenbrenner, *인간발달생태학*, 교육과학사 (원전은 1979년에 출판), 1992.
- [13] A. Gitterman, Advances on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In F. J. Turner(Ed.), *Social Work Treatment(4th ed)*, pp.389-408, Free Press, New York, 1996.
- [14] 문소현, 조현하, “성별에 따른 후기 아동의 자기 유능감, 사회불안, 우울,” 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230-238, 2010.
- [15] 장수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자살·우울·스트레스) 실태분석 및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제23권, 제4호, pp.95-110, 2014.
- [16] 조선미, 신윤미, 박정희, “아동의 자기보고 우울과 불안의 예측 요인,” 심리학회지 : 건강, 제11권, 제4호, pp.643-654, 2006.
- [17] 주지영,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8] 김정민, 송수지,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 pp.5-27, 2014.
- [19] 황은수, 성영혜,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 정서의 매개 효과,” 놀이치료연구, 제9권, 제2호, pp.73-89, 2006.
- [20] 최정아,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우울 간의 중단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pp.377-378, 2014.
- [21]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 [22] 김연희, 김선숙,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6권, pp.103-127, 2008.
- [23] 강희경, 김영미, 이은주,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 간의 관계-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정적 가족사건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0호, pp.179-204, 2009.
- [24] 김영미, “이웃환경 무질서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4호, pp.29-50, 2008.
- [25]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제63권, 제3호, pp.207-231, 2015.
- [26] 우유라, 노충래,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pp.203-227, 2014.
- [27] 최형임, 문영경,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5집, pp.189-209, 2013.
- [28] <http://archive.nypi.re.kr>
- [29] 조봉환, 임경희,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4호, pp.729-746, 2003.
- [30]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31] 김세원,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2]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33] <http://cpu.unc.edu/projects/addhealth>
- [34] 권혜원,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5]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연구소, 1984.
- [36] R. B. Klein,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New York, 1998.
- [37] 김석우, 김정섭, 김명선, 정혜영, 조영기, 박경미, 정성아, 박동성, 백영옥,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SPSS WIN 10.0 활용의 실제*, 교육과학사, 2003.
- [38] T.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1998.

[39] 박금주, 문은영,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6권, 제2호, pp.29-43, 1993.

[40] L. E. Berk, *아동발달(7판)*,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6년에 출판), 2008.

저자 소개

강희경(Hee Kyung Kang)

정회원



- 1998년 8월 : 경희대학교 가정학과(이학박사, 아동학전공)
- 1999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사회복지학석사)
- 2000년 9월 ~ 현재 : 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부모-자녀관계